

<2026년 수능 대비>

정도(正道) 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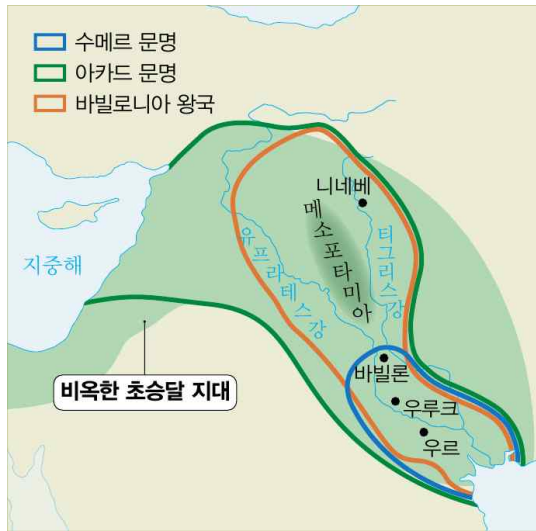
서아시아사 중요 개념 Blank 정리



[_____]님의 꿈과 목표를 응원합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p>01 고대 문명</p> <p>메소포타미아 문명</p>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3500년경,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개방적 지형 [] [우르·우르크·라가시 등 도시 국가 건설] ⇒ 아카드인 ⇒ 아무르인 [] 왕국] ⇒ 히타이트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권(신정) 정치(왕 = 신의 대리자), [] 법전(계급주의·보복주의 허용) <p>나는 신에게 부름을 받은 통치자인 함무라비, …… 제1조 남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한 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고발인을 사형에 처한다. 제22조 강도질을 한 사람이 붙잡혔다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제282조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주인은 자신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노예의 귀를 자른다. 현명한 왕, 함무라비가 세운 정의의 법이다. 함무라비는 공정한 법과 경건한 법령으로 땅을 가르쳤다.</p>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시 세계관(『길가메시 서사시』), 다신교([] 건설, 도시 국가마다 다른 신을 섬김) <p>온갖 고생을 다한 끝에 세상 끝에 도달한 길가메시는 우트나피쉬팀이 살고 있는 섬으로 가기 직전 한 여인숙에 머문다. 여인숙 주인이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이곳에 왔느냐고 물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 이야기와 죽음을 맞아야 하는 인간의 슬픈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여인숙 주인이 충고했다. “신들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즐기십시오.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사십시오.”</p>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설형 문자), []과 60진법 사용, 점성술 발달



〈아카드인의 원통형 인장〉




〈 [] 〉



〈 [] 문자〉

사명감 충만!!

02 고대 문명

지중해 연안 문명	히타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아시아() 건국, 철제 무기와 전차·기병을 이용한 정복 활동, 전파, 아시리아에 멸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해상 무역 전개, 등 여러 도시 건설 • 무역 활동의 편의 등을 위해 [] 문자 제작(→ 알파벳 발전에 기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진은 사르데냐섬 남부 해안의 고대 도시 유적지인 노라에서 발견된 비석으로, 지중해와 흑해를 무대로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람들에 관한 귀중한 연구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 비석에는 상업 활동을 위해 이들이 사용한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일찍이 이러한 문자는 그리스에 전해져 알파벳의 발전에 기여하였다.</p>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나안(현재의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왕국 건설, 솔로몬왕 때 번영,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 • [] 숭배 사상과 유대교 발전 →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형성에 영향



<히타이트의 전차>

𐤀 (a)Aloph	AA(a)Alpha
𐤁 (b)Beth	B (b)Beta
𐤂 (g)Gimel	Г C(g)Gamma
𐤃 (d)Daleth	Δ D(d)Delta
𐤄 (h)He	Ε E(e)Epsilon

< [] 문자와 알파벳 >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03 ★고대 서아시아의 발전

<p>_____ (기원전 671~기원전 6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슈르바니팔, 최초 서아시아 통일, _____(수도, 왕립 도서관), 중앙 집권 통치 실시(정복지에 총독 파견, 군용 도로·역전제 정비), 지구라트 건설 • 피지배 민족에 대한 _____ 통치 방식, 신바빌로니아·메디아·리디아 연합군의 _____ 점령(기원전 612) 이후 멸망
<p>_____ 페르시아 (기원전 559~기원전 3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루스 2세 : 리디아의 수도 _____ 함락, 신바빌로니아 정복, 제국의 기틀 마련,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종교 존중(원통 칙령) • 캄비세스 2세 : _____ 정복 • _____(재위 기원전 522~기원전 486) • _____ 건설, 총독(사트라프) 파견, _____(수사~사르디스), 역참 정비, 감찰관(왕의 눈·왕의 귀) 파견,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시작(기원전 492) • _____ 창시[자라투스트라, 선신(善神) 아후라 마즈다 신봉, 성화단(聖火壇)을 만들어 예배] • _____의 침공으로 멸망[다리오스 3세, _____ 전투(기원전 333)·가우가멜라 전투(기원전 331)]
<p>_____ (기원전 247~기원후 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레우코스 왕조의 쇠퇴 → _____ 계통의 유목민이 건국[아르사케스 1세, _____(수도), 중계 무역으로 번영(로마~인도의 _____ 왕조~후한)] • 로마 크라수스의 군대 격퇴(오로데스 2세, 카레 전투, 기원전 53), _____ 페르시아(아르다시르 1세)에 멸망
<p>_____ 페르시아 (224~65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계 민족의 건국(아르다시르 1세), _____(수도, 쿠산 왕조 침략, _____ 전투(샤무르 1세 ⇄ 로마 발레리아누스, 260), _____ 제국과 중계 무역 주도권 경쟁, 메소포타미아~인더스강(⇄ _____ 왕조)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동고트 왕국의 제안으로 비잔티움 제국 공격(호스로 1세) • 카디시야 전투 패배(⇄ 정통 칼리프 우마르(2) 휘하 군대, 636) ⇒ _____ 함락(637) ⇒ 사한샤 야즈데게르드 3세의 도주 ⇒ 암살·멸망 • 조로아스터교(_____), 『젠드아베스타』 편찬, _____ 창시와 탄압(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래), 궁정 건축,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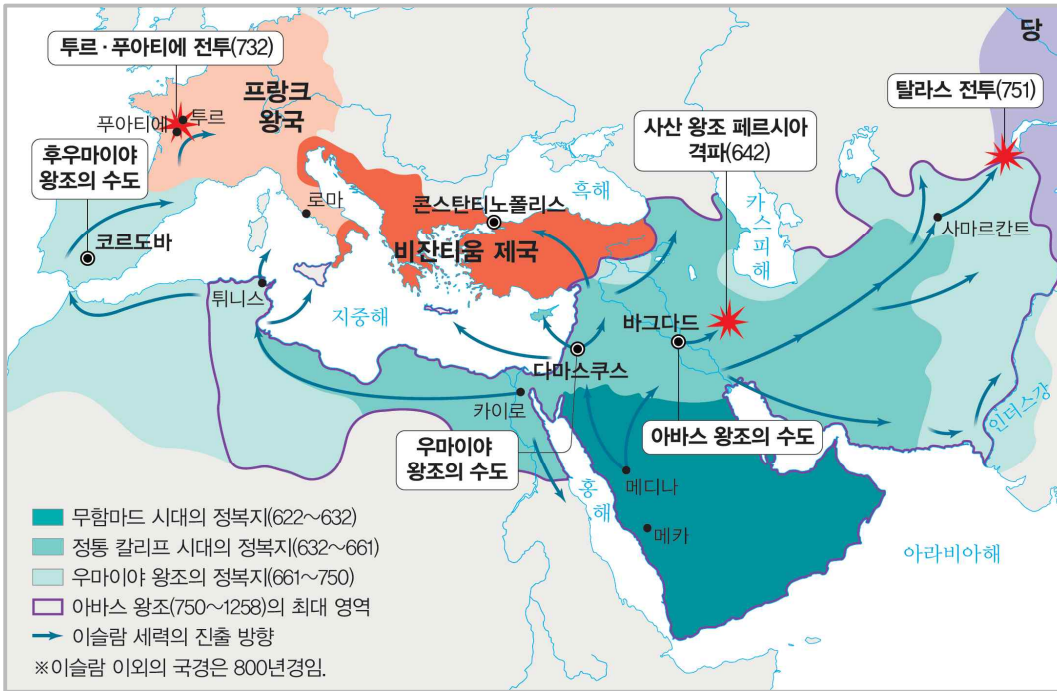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p>04 이슬람 세계의 형성</p>	<p>이슬람교의 성립(6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의 대립 →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지나는 교역로 발달 → 홍해 연안 []·메디나 등의 도시 번성 → 빈부격차 심화 • 무함마드(메카, 알라의 계시, 알라에 대한 절대복종), 『쿠란』(경전, 생활 지침서), 6신 5행 <p>→ 5행 ✓ 사하다[신은 오직 한 분 뿐이며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라고 증언하기], 살라트[매일 다섯 차례 정해진 기도 의식 올리기], 자카트[매년 재산의 일정 비율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사움[매년 라마단 기간에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하기], 하지[가능하다면 일생에 적어도 한 번 메카로 순례 여행 가기]</p> <p>이슬람의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 문화 융합, 이슬람 문화권(아랍어·이슬람교), 『쿠란』의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학 발달 • 신학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 번역(→ [] 철학 성립에 영향) • 자연 과학 발달[화학, 수학, 의학(이븐 시나, 『의학정전(醫學正典)』), 역법] • [] [꽃어 엮드려 경배하는 곳, 비잔티움 양식 + 사산 왕조 페르시아 건축 양식 + 돔·첨탑(미나렛)], 조형 미술 쇠퇴([] 문양 발달) 『여행기』(이븐 바투타), 『아라비안나이트』, *이븐 할둔(1332~1406)의 『역사서설(歷史序說)』
<p>05 ★이슬람 세계의 발전</p>	<p>무함마드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메카 → 메디나, 성전, 622), 움마(umma) 건설, 메카 탈환과 [] 반도 통일(630), 시리아 원정 도중 후계자 지명 없이 사망(632) <p>[] 시대 (632~6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나, [] 칼리프 시대[아부 바크르 → 우마르(재위 634~644, 지하드 강화) → 우스만 → 알리(재위 656~661)] • 비잔티움 제국 격파(636), [] 페르시아 정복(651), 시리아 정복, 예루살렘 점령, [] 정복, 중앙아시아로 세력 확대, [] 징수 <p>[] 왕조 (661~7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아위야, [] 칼리프 시대, [] (도읍), 카르발라의 참극(야지드 1세, 알리의 차남 후세인의 반란 시아파·수니파의 분리, 680), 북서부 아프리카 점령, [] 반도 진출(711), 북인도 진출(713), [] 전투 패배(732), 자브 전투에서 아부 무슬림의 반란군에 패배하여 멸망 • [] 우월주의, 아랍어(공용어), 바위의 돔 건립(예루살렘, 691) <p>[] 왕조 (750~12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부 알 아바스의 수립, [] 건설[알 만수르(재위 754~775), '메디나트 알 살람(평화의 도시)', 세계의 시장], 관료제·상비군·군인 노예(맘루크), [] 전투 승리(⇔ 당, 비단길 경영권 확보, 751), [] 홀라구의 원정으로 멸망[칼리프 알 무스타심 피살, 홀라구 울루스 성립] <p>홀라구는 아사신 일파를 전멸시킨 뒤에 바그다드로 행군하였다. 그는 [] 왕조의 칼리프에게 편지를 보냈다. “과거는 끝났다. 성벽을 허물고, 해자에 물을 채우고, 왕국을 너의 아들에게 넘기고 우리에게 와라. …… 이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 각오해라. 내가 분노에 차서 군사를 몰아 바그다드를 공격할 때는 네가 하늘에 숨든 땅에 숨든,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 영토 안에 단 한 사람도 살려 두지 않을 것이며, 너희 도시와 나라를 불태울 것이다. ……” 하지만 [] 왕조의 칼리프는 홀라구에게 이런 답장을 썼다. “동방에서 서방까지, 왕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노인부터 청년까지, 신을 두려워하며 신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은 이 궁정의 신하이며 내 군대의 병사들이라는 것을 너는 모르는가? ……” 바그다드 공격은 10여 일 만에 끝났다. 바그다드는 그저 정복당한 정도가 아니었다.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우월주의 폐지, 이슬람교도의 평등 강조, 범(凡)이슬람 제국, 지혜의 집(알 마문,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 기관, [], 832) <p>후우마이야 왕조 (____~10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둘 라만(아브드 알 라흐만 1세)의 건국, [] (수도, 이베리아반도), 10세기 전반 [] 선언 • 이슬람·비잔티움·그리스 문화 융합, 코르도바 메스키타(코르도바의 대모스크, 785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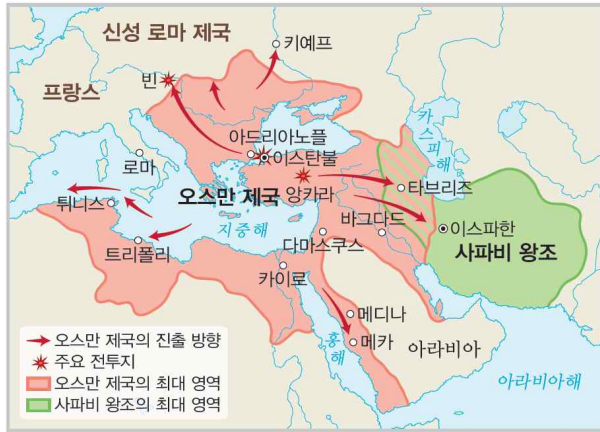
05 ★이슬람 세계의 발전

<p>파티마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아프리카 건국(909), 카이로 천도(969), 10세기 초 □□□□ 선언, 알 아즈하르 대학 설립, 멸망(by 아이유브 왕조) <p>코르도바를 거점으로 하는 왕조 외에 바그다드의 칼리프에 맞서는 새 왕조가 튀니지 지역에서 등장하였다. 새 왕조를 세운 시아파 세력은 자신들이 예언자 무함마드 딸의 후손으로 진정한 이슬람의 칼리프임을 선포하였고, 무함마드 딸의 이름을 왕조의 이름으로 삼았다. 새 왕조는 동쪽으로 진출하여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였고, 나일강 유역에 새 수도를 건설하고 아랍어로 '승리'를 의미하는 카히라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로써 이슬람 세계는 세 조각으로 나뉘었다.</p>
<p>그라나다 왕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조 무함마드 1세(재위 1232~1273)의 창립(1231), 알함브라 궁전(1323), 크리스티노 재정복 운동으로 멸망(1492)
<p>□□□□ (1037~124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니아(수도), 초대 술탄 □□□□ [재위 1037~1063, 단다나칸 전투(⇔ □□□□ 왕조, 1040), 이스파한 점령(1049), □□□□ 입성(1055), 아바스 왕조의 알 카임 1세로부터 □□□□ 칭호 획득] □□□□ 점령(1071), □□□□ 진출, 비잔티움 제국 압박, □□□□ 전쟁 유발 장기간 지속된 전쟁 및 왕조의 분열 → 멸망(by 몽골)



06 ★이슬람 세계의 팽창

<p>○ 제국 (1299~1922)</p>	<p>성립 · 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튀르크 계통의 ○족이 아나톨리아에서 건국(1299), 비잔티움의 크리스티교 연합군 격파 → ○ 반도 장악, 술탄 칭호 사용 • ○ 2세[재위 1451~1481, ○ 점령(비잔티움 정복, 이스탄불 개칭, 1453), 유프라테스강 상류 진출] • ○ 1세[재위 1512~1520, 찰디란 전투(⇔ 사파비 왕조), 마르즈 다비크 전투(○ 왕조 정복, 메카·메디나 장악), 술탄·칼리프 제도] • ○ 1세(재위 1520~1566) <p>: 모하치 전투[○ 정복(1526)], ○ 포위 공격·실패(1526~1529), 바그다드 점령(1533), 프레베자 전투(1538)</p> <p>에스파냐, 베네치아 등이 가담한 유럽 연합 함대와 ○ 제국의 함대가 프레베자 근해에서 충돌하였다. 이 해전에서 ○ 제국이 승리를 거두고 ○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p> <p>: 바부르 지원(1526), ○ 제후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 제안(1552), 법령 정비와 법전 편찬, 예술 분야 후원</p> <p>○ 1세의 별명은 두 가지이다. 먼저 서양인들은 그를 '잠엄왕'이라 부른다. 그가 실시한 원정의 대부분이 유럽을 대상으로 하였고, 특히 헝가리 정복과 빈 포위가 서양인들에게 강렬한 인상과 두려움을 남겼기 때문이다. 한편 오스만 제국 사람들은 ○ 1세를 '○'이라 불렀다. 그의 치세 때에 지배 체제가 확립되고 이슬람법이 정비되어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중앙의 통치력이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셸림 2세[재위 1566~1574, ○ 해전 패배(⇔ 에스파냐 ○ 2세, ○ 제해권 상실, 1571)]
	<p>통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제도[군정관·기병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 부여], ○ 제도(발칸 반도의 크리스티교도 소년 징집), ○(술탄의 친위 부대, 1330~1826)와 시파히(기갑 군단), ○ 제도(인두세 납부 조건으로 이교도의 종교 공동체 인정)
	<p>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톱카프 궁전, 슐레이마니에 사원(1557), 술탄 사원, 술탄 아흐메드 사원(블루 모스크), 튀르크 궁정 문학 발달, 세밀화 유행 <p>제국의 사회는 지배층인 아스케리와 피지배층인 레야야로 뚜렷이 양분되어 있었다. 아스케리는 고위 관리들, 티마르 소유자들, 정규군·비정규군 등 다양한 무장 군인들을 포함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아스케리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정부 내 각료에 임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구분은 지배층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술탄은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톱카프 궁전에서 거주하였다. 또한 귀족 가문의 여성과 결혼하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귀족 가문과 혼인하지 않았다.</p>
<p>맘루크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맘루크(옹병)가 성립(1250), 아이유브 왕조에 이어 이집트와 시리아 일대 통치, ○ 격퇴(메카·메디나 보호), ○ 제국에 멸망(1517) 	
<p>○ 왕조 (1370~15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위 1370~1405, ○ 부활 표방, ○(수도, 7년 원정(1392~), 다마스쿠스 점령(⇔ 맘루크 왕조), 델리 술탄 왕조 침공(1398), 앙카라 전투 승리(⇔ ○의 술탄 바예지드 1세 생포, 1402), 명 원정 도중 병사), 샤 루흐(☺, 재위 1409~1447, 명과 화친 추구), ○인에게 멸망 •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사막길의 중간 기착지)], 튀르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융합, 세밀화, 천문학 발달 	
<p>○ 왕조 (1501~17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마일 1세(재위 1501~1514) : 타브리즈(이란 지역, 수도), 페르시아 제국 계승 표방, ○ 이슬람교(국교), 군주 칭호 '샤' 사용, 찰디란 전투 패배(⇔ 오스만 셸림 1세, 1514) • 아바스 1세(재위 1588~1629) : ○ 천도(1597), 이맘 광장 건설(1599~), 이맘 모스크 건축, 군사력 강화, 비단 산업의 국유화, 크리스티교 포교 허용 • 수니파 국가인 ○ 제국과 대립, 왕실 내부의 갈등과 혼란, ○족의 침입으로 멸망 	



〈샤 루흐〉

07 서아시아·이집트 민족 운동

<p>□ 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독립과 □의 자치 허용(1829), 강대국(영국·러시아)의 압박 □(술탄 압둘 메지트 1세, 장미의 방 칙령, 1839~1876) ⇒ □ 헌법 공포(미드하트 파샤(1822~1883) 주도, 입헌군주제(내각 회의·제국 의회), 종교의 자유, = 오스만 제국 헌법, 1876] ⇒ 러시아·튀르크 전쟁(1877~1878)으로 개혁 중단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재위 1876~1909), 헌법 정지와 의회 해산 등 술탄 전제 정치 강화 □(1889~1922)의 입헌 혁명(1908) : 무장봉기와 권력 장악, □년 헌법 부활과 □ 정치 주장, 근대화 정책 추진,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제국 내 다른 민족의 반발)
<p>아라비아 세계의 각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기 □ 운동[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1703~1792) 주도] : 이슬람 순화 운동(『쿠란』으로 돌아가라!), 아랍 민족의식 강화, 제1차 사우디 왕국(1774~1818) 건설
<p>이란(□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 영국의 경쟁에 휩쓸려 많은 영토와 이권 상실, 나시르 앳딘 샤(재위 1848~1896)가 □ 전매 독점권을 □에 부여(1890) □에서는 나시르 앳딘 샤에 의해 근대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와 그의 후계자들은 군대와 관료제를 개혁함으로써 올라마*와 부족, 상인 집단에 맞서는 중앙 집권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 올라마 같은 이들에게 이 개혁은 너무 급진적인 것으로 비쳤지만 서구식 교육을 받은 급진 개혁주의자들에게는 너무도 미흡하게 느껴졌다. 한편, □을/를 통치하던 □ 왕조의 사들은 □과 □에 착취당하는 자국민들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듯 보였다. 이에 반정부 세력들은 입헌 군주제의 도입을 위해 뜻을 모았다. 그러나 헌법이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올라마들은 지지를 철회했다. *올라마 : 이슬람의 신학자, 법학자 아프가니의 □ 이권 수호 운동(□ 불매 운동, 1891) 전개 ⇒ □의 □ 독점권 회수 ⇒ 막대한 배상금 지급 □[국민 의회 수립, 입헌군주제 헌법 제정(1906), 1905~1908] ⇒ □·□의 분할 협정(1912), 반(半)식민지 상태로 전락

07 서아시아·이집트 민족 운동

<div data-bbox="302 443 414 48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24px; margin: 0 auto;"></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맘루크들의 권력 투쟁, 종교 지도자들의 봉기로 총독 쿠르시드 파샤 무력화 • [] (1769~1849) : 민중 봉기를 통해 총독으로 추대(1805), 태수 임명([] 제국 술탄의 승인), 와하브 왕국 정복(1818), 자치 획득(from [] 제국, 1829)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 5px 0;"> <p>[]에서는 집권에 성공한 []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으며, 이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질서가 향후 근대화 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가 울라마와 전통적인 군부 세력인 맘루크를 제거하고 그들의 통제 속에 있던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일어났다. …… 동방의 이슬람 지역과는 달리 카이로는 점점 서구형 도시로 성장해 나갔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상이 전통적인 신념들과 나란히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셈이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레셉스의 [] 운하 개설 특허 획득(1859) ⇨ [] 운하 개통(1869) ⇨ []의 운하 경영권 차지(1875) ⇨ 내정 간섭 강화 • [] (1841~1911) : ‘[]인을 위한 [] 건설’ 주장, 혁명 운동(1881~1882), 헌법 제정과 의회 선거 요구, []의 진압으로 실패 • []의 보호국으로 전락(1882) • 영국으로부터 독립(1922) ⇨ 나세르(1918~1970)의 [] 운하의 국유화 선언(1956)
---	---